



“의미있는 영화인 만큼 사실 재현에 집중했죠”

‘인천상륙작전’ 이정재 “실존 인물 연기 부담감 컸다”

‘도둑들’(1298만명), ‘신세계’(468만명), ‘관상’(913만명), ‘암살’(1270만명).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배우 이정재(사진)가 출연한다는 점이다.

나오는 영화마다 ‘대박’을 터트린 이정재가 이번에는 여름 성수기 시장을 노린 블록버스터 ‘인천상륙작전’으로 관객을 찾는다.

인터뷰에서 그는 우선 이 영화를 둘러싼 이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언론 사회 후 남북한 대립을 극단적인 선악 구도로만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정재는 이에 대해 실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사실 그대로 영화로 옮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대북 첩보작전인 ‘X-레이’ 작전을 이끈 해군 첩보부대 대장 장학수를 연기했다.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이전의 첩보작전을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 그 시대의 배경과 그 배경 안에서 움직였던 실존 인물을 더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데에 더 집중한 것 같다. 그렇다 보니 한국전쟁이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나오는 ‘민족의 애환’이라는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영화 제작진의 ‘팩트’에 대한 고집을 임병래 중위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북 첩보작전을 수행하던 해군 소속 임 중위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에 포위되자 자신이 포로로 잡히면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자결한 실존 인물이다.

“임 중위 이야기를 영화에 꼭 넣고 싶었다. 그러나 첩보부대(KLO·한국인으로 구성된 연합군 소속 스파이 부대)가 등대를 켜는 시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인근 해안에 도착한 시간 등 건드리면 안 되는 팩트의 임 중위의 자결 날짜가 안 맞더라. 영화에 넣으면 감정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건을 영화적으로 버무리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화에 기반한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첩보부대원들의 활약을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덜 드러내게 연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학수가 선한 역이기는 하지만 긴장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암살’의 친일파 염석진 만큼 부담이 컸다고 전했다.

주연배우로서의 이정재의 고민은 이 영화가 개봉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

“개봉 시기를 어려움으로 정해놓았음에도 실제 촬영은 지난해 12월에 들어갔다. 컴퓨터 그래픽(CG) 작업을 비롯한 후반 작업도 해야 하는 작품이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그에 따르면 당시 제작사 측은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으므로 영화가 개봉하기에 문제가 없는 ‘퀄리티’를 확보하면 무조건 여름 시장에 개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영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관객들이 모이는 시즌이 아닌 시기에 개봉하면 우리끼리 잔치로 끝날 수 있으니 제작사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빨리빨리 서둘러 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같이 출연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은 그를 두고 “진정한 배우”라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정재는 이에 대해 “현장에 가면 저의 역할인 연기를 잘하고 싶으니깐 제가 해야 할 일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이라며 “리암 니슨이 아마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신사적인 분이어서 남 칭찬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웃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을 다루기보다는 이 작전이 가능하게 한 해군 첩보부대와 첩보부대원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이 영화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의 인물과 작전을 알게 해주는 영화”라며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박찬호·이시영 등 남녀 동반 입소… 내달 방영 ‘진짜사나이’ 해군 부사관 특집



‘코리아특급’ 박찬호와 배우 이시영, 가수 서인영 등이 MBC TV ‘진짜사나이’의 해군 부사관 특집에 출연한다.

‘진짜사나이’ 제작진은 해군 부사관 특집 촬영을 25일 오전 시작했다고 밝히며 입소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진짜사나이’ 육군 편에 도전했던 박찬호가 해군 편에 다시 출연하며, 한동안 복서로도 이름을 날렸던 배우 이시영과 가

수 서인영, 솔비, 러블리즈의 서지수가 여성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배우 김정태, 이태성, 개그맨 양상국, 가수 박재정과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도 입소했다.

제작진은 “‘진짜 사나이’ 최초로 남녀 연예인들이 동시에 해군 부사관 훈련을 받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 부사관 특집은 다음달 중 방송된다. /연합뉴스

최지우, 법정 로맨스로 돌아온다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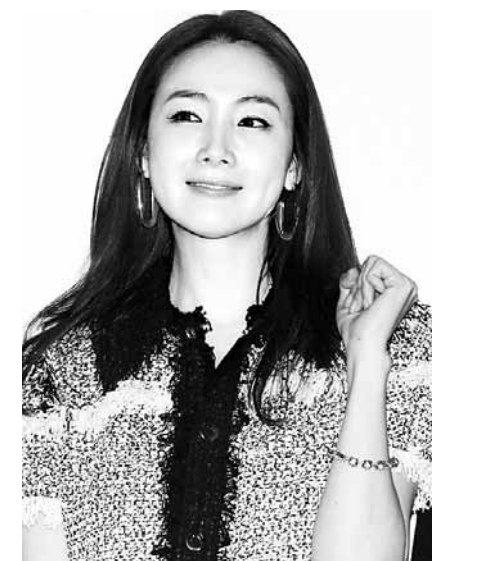
최지우(사진)가 MBC TV 새 월화극 ‘캐리어를 끄는 여자’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매력적이고 유능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파파라치 언론사 대표를 만나 시련 끝에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법정 로맨스다.

최지우는 잘나갔던 사무장에서 음모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주인공 차금주를 연기한다.

MBC는 25일 최지우의 캐스팅을 전하며 “딱딱한 법정드라마가 아니라 정재계와 연예계, 사회적 이슈, 파파라치 언론, 범죄계 주변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어우러진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경력이 단절되어 시련을 겪은 여성이 꿈을 찾는 내용이 범죄계 주변을 배경으로 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로맨스로 이어지며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몬스터’ 후속으로 오는 9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일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골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여름특선 행복한 지도 30 여름특선 영상앨범산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골지락
2	00 2016 서울 국제 유스 앙코르페스타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군(재)
3	55 튠트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란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00 KBS 뉴스9	55 1대 100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정전 63주년 특집다큐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	10 리우 올림픽 기획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해외걸작다큐	3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별을 꿈꾸다)(재)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디큐 오늘
05:30 건강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세계사 시간여행	〈사막에서 살아남기〉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 맛여행-하노이 음식탐험)	〈녹두상계탕과 도토리묵 무침〉	15:30 피터레빗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0 꼬마기사 마이코(재)	〈세이셸군도 대탐험 2부 - 살아있는 예멘통신, 포탈린〉
07:00 레이디 버그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브로로와 노래해요	16:00 한국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감(재)	16:0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45 땡땡땡 유치원1~3(재)	〈기운찬 로드 2부 - 그 섬은 초록이어라〉
08:00 땡땡땡 유치원1~3	〈조선의 신전, 중요〉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코코코 다코	13:4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45 로보카 폴리	〈천국의 사다리, 무한〉
09:00 코코몽3	13:50 원더볼츠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30 원더볼츠	14:00 로보카 폴리	19:00 레이디 버그(재)	〈메콩강 국수혈머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불효자 안만디는 법2)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30 EBS뉴스	23:35 시대공간
		19:50 극한직업 (보석 재가공)	24:0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6일(6월 23일 己酉)

子	48년생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면책길 길을 찾아라. 60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있을 수다. 72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84년생 역경은 경엄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0, 43	午	42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 54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66년생 현황의 추이대로라면 길정이 명백하다. 78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모순이다. 행운의 숫자 : 89, 54
丑	49년생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나가기야만 한다. 61년생 초기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뒤늦게 생길 것이다. 73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이다. 85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05	未	43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55년생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겠다. 67년생 중대사와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79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심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6, 83
寅	50년생 초심으로써 대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다. 62년생 반국을 뒤집을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74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86년생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91, 35	申	44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56년생 시국이 올바르게 성과를 알차다. 68년생 생활에 활력이 될 만한 일이 보인다. 80년생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95, 55
卯	51년생 되새겨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63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넘지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하여야만 한다. 87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08	酉	45년생 본디대로 대함이 나올 것이니라. 57년생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제어를 할 수 있겠다. 69년생 최소화할 수 있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리라. 81년생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적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0, 74
辰	40년생 태연자약하게 침묵을 지키라. 52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64년생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라. 76년생 중저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88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9, 84	戌	46년생 국민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58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라. 70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병실하기 쉬운 법이다. 82년생 주관적 실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6, 80
巳	41년생 반응이 중요하다. 53년생 구별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그러므로 양호할 것이다. 77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89년생 마음을 비운다면 여유로운 상태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행운의 숫자 : 79, 10	亥	47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는 길목에 놓여 있다. 59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올 것이다. 71년생 안락을 추구하려다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83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진리하면 만사 행통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0,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팀” ☎010-9790-8237